

이방인의 견문록에 나타난 청대 궁정연극

- 朝鮮, 越南, 英國 사절단 기록의 재발견과 재검토

이정재*

<目 次>

1. 들어가며
2. 외부인의 중국연극 전문에 대한 연구 현황과 자료
 - 1) 조선의 연행사들이 기록한 중국연극에 대한 기존 연구
 - 2) 월남과 영국의 방문자들이 기록한 중국연극 자료의 성격
3. 외부인의 기록에 나타난 청대 궁정연극의 모습
 - 1) 추가검토 및 재검토 자료 현황
 - 2) 건륭 말엽의 기록
 - 3) 함풍·동치 연간의 기록
4. 맺음말을 대신하여: 외부인의 눈에 비친 중국연극

1. 들어가며

중국연극사는 중국 연극을 대상으로 하는 史的 서술이지만, 중국 연극이 오랫동안 중국 외부의 연극 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전개되어 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중국연극사 서술은 중국 내 연극의 전통에 대한 검토뿐 아니라 중국 외부와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라고 하겠다.¹⁾ 실제로

* 서강대학교 중국문화진흥공 교수

1) 본고에서는 중국연극의 기원과 관련한 본토설과 외래설 사이의 논쟁을 다루고자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역사적) '중국'의 범위 및 '연극'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 때문에 이 논쟁은 연극 자체의 문제 이외에 정치적인 태도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흥미롭지만 따로 다루어야 할 복잡한 문제이고, 이미 적지 않은 논의가 이루어진 바도 있다. 대표적인 논문집으로 李肖水, 黃天驥, 袁鶴翔, 夏寫時 編, 『中國戲劇起源』, 知識出版社, 1990을 들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초점을 '기원' 이후의 연극사적 맥락에서 '중

많은 중국연극사 논저들은 이미 중국 연극 가운데 어떤 영역이 중국 외부의 영향 아래에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예를 들어 廖奔과 劉彦君이 함께 쓴 『中國戲曲發展史』에서는 제1권 상편의 제5장에서 ‘西域 戲劇文化吸收’라는 부분을 설정하여 인도의 극본이 吐火羅文과 回鶻文의 단계를 거쳐 어떻게 ‘東漸’하여 중국 연극의 장에 흡수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西域의 樂舞가 역시 어떠한 양상으로 중국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²⁾ 뿐만 아니라 원잡극의 근간이 되는 北曲 중 상당수가 ‘북방민족’의 가무 곡조에 연원을 두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하면서, 【異國調】、【四國調】、【六國調】、【蠻牌序】、【蓬蓬花】 등이 북방민족 가무의 특색이 농후하게 남아있는 노래이고, 【鷓鴣】、【阿納忽】、【風流體】、【古都白】、【唐兀歹】 등 여진족의 곡조에서 들어온 노래가 적지 않다고 하였고, 箏, 箏, 琵琶, 胡琴, 渾不似 등 漢人의 악기와 다른 ‘達達樂器’들이 들어왔음을 적은 기록을 인용하고 있기도 하다.³⁾ 국내에서는 金學主 교수의 『중국 고대의 가무회』에서 위진남북조와 수당대의 가무회에 들어있는 ‘胡戲’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⁴⁾

그런데 위의 두 가지 사례에서 본 것처럼 연극사적 맥락에서는 대부분 초기의 중국 연극이 ‘서역’이나 ‘북방’이라는 ‘외부’의 연극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같은 탐색이 중국 연극의 형성 과정에서의 혼종성이나 그것의 음악적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나, ‘서역’이나 ‘북방’ 이외의 다른 지역과의 접촉 및 상호 영향 관계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검토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 아닌가 한다. 물론 한대에서 당대까지 중국이 접촉하고 교류한 외부는 한국, 월남, 유구, 일본 등 이른바 ‘한자문화권’을 제외하면 중앙아시아 및 그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서의 ‘서역’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연극사의 차원에서는 이 시기부터 이미 중국연극과 ‘서역’ 가무와의 관계 뿐 아니라 중국 가무회와 고구려 가무와 밀접한 관

국’과 외부가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는가에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와의 접촉이나 영향 관계를 적극적으로 살피고자 함을 밝힌다.

2) 廖奔, 劉彦君, 『中國戲曲發展史』(총4권), 山西教育出版社, 2000 참고.

3) 廖奔, 劉彦君, 위의 책, 제2권, pp.15~16.

4) 김학주, 『중국 고대의 가무회』, 명문당, 2001.

계가 있었다는 것, 당악의 한반도 및 일본 전파 등의 문화적 영향관계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원대 이후 특히 명청대에 교류가 증진된 동남아시아, 유럽, 미주 등과도 연극문화 차원에서의 상호 연관성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중국과 외부의 연극문화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보다 균형 잡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서역', '북방' 이외에 중국 연극이 관련을 맺은 '외부'를 가깝게는 조선, 월남, 동남아시아 등으로, 그리고 멀게는 유럽과 미주 지역 등으로 나누어 검토해볼 수 있다. 먼저 고려, 조선과 월남에서 중국의 명·청 왕조에 파견한 외교 사절들의 여행기가 중심이 된 '燕行錄'이 중국 측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귀중한 내용이 포함된 기록이 관심을 모은 바 있고, 동남아시아 각지에는 명청대에 이주한 福建, 廣東 출신의 중국인 후예들이 이어가고 있는 중국 연극 활동을 들 수 있으며, 멀게는 유럽으로부터 중국에 파견되어 온 선교사들의 기록과 번역을 통해 중국 연극이 유럽으로 전파된 일과 북미 지역에 이주한 초기 중국 이민자들의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중국 연극 활동, 서양 작가들의 중국연극 번역과 전파, 중국어권 극단의 해외 순방 등이 있었음을 떠올릴 수 있다.

이를 다시 '견문'과 '전파'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단순화하여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견문' 부문은 한국, 월남, 유럽 등지의 외부인들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연극을 관람하고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긴 일을 가리키고, 이들은 燕行錄이나 여행 日記, 書信의 형태로 남아있다. 다음으로 '전파' 부문은 유럽의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한 뒤 귀환하여 중국 연극 작품을 번역하여 유럽에 소개하여 큰 영향을 끼친 일, 동남아시아나 북미 등지로 이주해간 중국인들이 새 터전에서 연극 활동을 이어간 일, 그리고 서양의 작가들이 중국연극 작품을 바탕으로 새롭게 각색하여 작품을 발표하는 일과 중국어권 지역의 극단들이 해외를 순방하면서 공연하는 일 등의 여러 종류가 포함될 수 있다.⁵⁾

5) 본고에서 살필 연행록과 여행 일기를 제외하고, 서양인들이 중국 또는 서양에서 경험하고 인식한 중국연극에 대해서는 施叔青, 『西方人看中國戲劇』, 聯經出版, 1976, 陳偉, 『西方人眼中的東方戲劇藝術』, 上海教育出版社, 2004, 都文偉, 『百老匯的中國題材與中國戲曲』, 上海三聯書店, 2002 등이 대표적이고, 동남아시아 화교의 연극 활동에 대해서는 周寧, 『東南亞華語戲劇史』, 廈門大學出版社, 2007, 王漢民, 『福建戲曲海外傳播研究』, 中國社會科學出

이처럼 중국연극이 외부와 어떠한 관련을 맺으면서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피는 것은 상당히 폭넓고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대형 과제가 아닐 수 없고, 특히 이러한 논의가 체계성을 갖추고 의미 있는 견해와 내용을 포함한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각 종류별 기록 및 자료의 성격과 관점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논의들 초안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설계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이루는 '견문' 영역, 그 가운데에서도 극히 일부 소영역에 대해 기존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통해 그것의 성격을 재조명하고, 기왕에 논의되지 않았던 일부 자료들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거시적 논의로 체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인식을 획득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외부인의 중국연극 견문에 대한 연구 현황과 자료

고려, 조선, 월남의 燕行使들이 중국연극을 보고 적은 기록, 유럽의 외교 사절 및 선교사들이 중국연극을 경험하고 기록한 일기, 서신 등의 자료 가운데, 본고에서는 우선 조선과 월남, 그리고 영국의 외교 사절들의 기록에 대한 연구 현황을 중심으로 살피고, 유럽 선교사들의 활약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살피고자 한다.

1) 조선의 연행사들이 기록한 중국연극에 대한 기존 연구

고려, 조선의 사절들이 적은 燕行 기록인 燕行錄은 使行의 路程, 儀式 및 중국의 역사와 제도, 인적, 문화적 교류, 중국의 서적과 학술 등에 대해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 서양의 문물과 과학기술, 民情, 풍속, 언어, 지리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연극과 연희, 심지어 서양의 연희에 대해서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동아시아 여러 분야의 연구에서 꼭 참고해야 할 다양하고

版社, 2011 등이 있다.

방대한 기록의 보고'이다.⁶⁾ 中村榮孝, 金聖七, 高柄翊 등이 개척한 연행록 연구는 2권본 『연행록선집』(1960), 12권본 『국역연행록선집』(1976~1977)가 간행됨으로써 자료가 모아졌고, 금세기에 들어와 林基中이 근 400종의 연행록을 모아 총 100권 분량의 『연행록전집』(2001)를 간행함으로써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후 그는 『연행록연구』(2002)에서 25종의 연행록을 대상으로 화답시, 연회, 복식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⁷⁾, 다시 지속적인 추가 수집을 통해 2013년에 총 550여종에 이르는 『燕行錄叢刊增補版』을 전자책의 형태로 일반에 공개하기에 이르렀다.⁸⁾ 그 사이에 조규익 등은 국내 연행록 관련 논문을 모은 10권본 '연행록연구총서'(2006)를 간행하였고⁹⁾, 관련 연구서도 꾸준히 간행되었다.¹⁰⁾ 중국에서도 1990년대부터 연행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30권본 『韓國漢文燕行文獻選編』이 간행되었고, 2012년에 발표된 王禹浪, 程功, 劉加明의 「近二十年中國『燕行錄』研究綜述」에는 1997년에 발표된 王政堯의 「『燕行錄』初探」을 필두로 하여 근 100편의 주요 연구논문이 소개되어 있다.

조선의 연행록에는 중국의 연극과 연회에 대한 기록도 풍부하게 담겨 있어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연행록에 나타난 중국 연극 및 연회 관련 기록에 대한 연구로는 국내에서 임기중, 이창숙, 안상복, 김은영, 임준철, 신지영 등이 주요 업적을 내고 있다.¹¹⁾ 주요 성과를 보면, 임기중은 본인이 수집한

6) 임기중, 『연행록연구』, 일지사, 2002, pp.9~10.

7) 최근 이 책의 증보판이라고 할 수 있는 『연행록연구총위』(학고방, 2014)가 간행되었다.

8) 누리미디어(<http://krpia.co.kr>) 참조.

9) 조규익, 이성훈, 전일우, 정영문 편, 『연행록연구총서』, 학고방, 2006 참조.

10) 개괄적인 연구서로는 최소자, 정혜중, 송미령, 『18세기 연행록과 중국사회』, 해안, 2007,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해안, 2007, 鄭光, 藤本幸夫, 金文京 공편, 『연행사와 통신사』, 박문사, 2014 등이 있고, 개별적인 연구서는 강명관, 『홍대용과 1766년』, 한국고전번역원, 2014를 비롯한 다수가 나와 있다.

11) 중국 연극에 대해서는 임기중의 『연행록연구』에 실린 「연행록의 연회기와 관회시」, 「연행록의 연회기」와 함께 申智瑛의 「韓國記行文中的淸宮演劇」(2000), 이창숙의 「연행록의 중국회곡사료적 가치 탐색」(2000), 「1790년 가을, 열하, 원명원, 북경」(2003), 「연행록 중 중국회곡 관련 기사의 내용과 가치」(2004), 「연행록에 실린 중국연회와 그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2010) 등이 있고, 잡기/연회에 대해서는 임기중의 같은 책에 실린 「연행록의 환회기」, 이창숙의 「萬籟를 울리는 입의 재주—口技」(2002)와 「재주는 꿈이 넘고」(2004), 안상복, 「연행록의 雜技 관련 기사 연구」(2007), 임준철, 「18세기 이후 燕行錄 幻術記錄의 형성배경과 특성 - 洪大容, 朴趾源, 金景善의 幻術記錄을 중심으로」(2011) 등이 있다.

방대한 연행록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희기, 환희기, 관희시 등을 조사 정리하였는데, 1차 자료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가장 큰 특징이자 업적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연행록 속의 중국연극 관련 기사를 대량으로 발굴, 소개하여, 비록 북경 위주의 기록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국연극의 모습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공적이 크다고 하겠다. 다만 이것이 개척적인 연구인 탓이 크겠지만 주로 자료 추출과 나열에 치중하면서 중국연극의 특징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큰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창숙은 2000년부터 연행록에 기록된 중국연극의 실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문을 발표하여, 田仲一成과 王政堯의 초기 연구의 성과와 주요 연행 기사를 소개하면서 중국연극에 관한 記事를 정리하는 일이 시급함을 지적하고(「연행록의 중국희곡사료적 가치 탐색」), 조선의 徐浩修(1736~1799)가 1790년 가을 乾隆帝의 80세 생일을 맞아 避暑山莊, 紫禁城, 圓明園 등지에서 관람한 공연 기록을 적은 『燕行記』를 분석하여 공연 제목, 극장 형태, 상연 실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하였다(「1790년 가을, 열하, 원명원, 북경」). 이어 『국역 연행록선집』에 수록된 연행록 20종과 『을병연행록』, 『열하일기』를 포함하여 22종으로 검토대상을 확대하여 극장, 무대, 상연제도, 작품, 배우, 기록자의 희곡관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거나(「연행록 중 중국희곡 관련 기사 내용과 가치」), 궁정 의전, 아문 접대, 사행의 초청, 개인 유람 등으로 활동 상황을 구분하고 연극류와 잡기류의 다양한 공연 형태에 대해서도 상세한 인용을 통해 실상을 보여주는 등(「연행록에 실린 중국 연희와 그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 기존의 알려진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중국연극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다만 2013년에 발표된 『燕行錄叢刊增補版』에 추가로 수집된 연행록에 대한 자료 검토는 진행하지 않아서 추후 보완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田仲一成, 王政堯, 磯部祐子, 葛兆光, 程芸, 金文京 등이 조선의 연행록에 나타난 중국연극 관련 記事에 대한 의미 있는 탐색을 진행해 왔다.¹²⁾ 일본에서는 일찍이 1970년에 田仲一成이 17세기에서 19세기 초에 이르

는 기간에 씌어진 7종의 연행록을 검토하여 「朝鮮使節燕行路程における清代初期興行演劇の形成」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여 연행 노정에 본래 지방 공동체 연극이었던 것이 발전한 흥행 연극이 있었고, 그것이 집약되어 북경 흥행 연극으로 나타났으며 반체제적이고 자유를 갈구하는 작품이 많이 상연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¹³⁾ 이 논문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으로 가장 이른 시기에 발표된 것이지만, 너무 앞서 발표된 탓인지 후속 연구가 이어지지 못한 점이 아쉽게 생각된다. 磯部祐子は 1996년 발표한 「朝鮮使節の見た中國戯曲と戯曲觀—燕行録を主として」에서 8종의 연행록을 검토하여, 기록자들이 주로 통치계급인 까닭에 교화적 연극관을 가졌고, 조선과 청 사이에 문화적, 연극적 차이에 있음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는 것, 청의 도시문화가 발달했다고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연극의 융성과 나라의 운명이 서로 연관된다고 보았다는 것 등을 지적했다.¹⁴⁾ 역시 독보적인 진술이지만 검토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점이 한계라고 하겠다. 王政堯는 1997년에 발표한 「略論『燕行録』與清代戲劇文化」에서 8종의 연행록을 대상으로 검토하여 건륭 시기 중국연극의 여러 가지 모습을 자세히 예시하면서 연행록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⁵⁾ 다만 이창숙의 지적대로 田仲一成과 王政堯는 각각 연행록을 중국연극의 흥행성을 밝히는 데 활용하거나 그것의 일부 보기만을 보여주었을 뿐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논증은 유보한 한계가 있다.¹⁶⁾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기존 발굴 연행록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고 새로운 연행록이 발굴 수집될 때마다 보완 논의가 따라야 함은 마땅하다고 하겠다. 이후 葛兆光是 2005년 발표한 「大明衣冠今何在」와 2010년 발표한 「不意於胡京復見漢威儀—清代道光年間朝鮮使者對北京演戲的觀察與想像」에서 각각 조선 연행사가 보고 들은 중국연극 관련 기록

12) 田仲一成, 「朝鮮使節燕行路程における清代初期興行演劇の形成」(1970), 磯部祐子, 「朝鮮使節の見た中國戯曲と戯曲觀—燕行録を主として」(1996), 王政堯, 「略論『燕行録』與清代戲劇文化」(1997), 葛兆光의 「大明衣冠今何在」(2005)와 「不意於胡京復見漢威儀—清代道光年間朝鮮使者對北京演戲的觀察與想像」(2010), 程芸, 「『燕行録全集』演劇史料輯録」(2010), 金文京, 「燕行使와 通信使가 본 中國과 日本의 演劇」(2014) 등이 그것이다.

13) 이창숙, 「연행록의 중국희곡사료적 가치 탐색」, 『중국문학』 제33집, 2000, pp.260~261.

14) 특히 해당 논문의 pp.108~109 참고.

15) 위의 글, p.261.

16) 위의 글, p.261.

을 토대로 하여 당시 중국인들의 '歷史記憶'의 억압, 이방인들의 중국 상상 등의 문제를 깊이 있게 토론하였다. 그는 연행록 속의 중국연극 관련 자료를 방대하게 이용하였으나, 연극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중국인의 역사인식과 외부인의 중국 인식의 문제에 치중한 점이 특색이다. 최근에는 程芸이 『연행록전집』에 수록된 중국연극 관련 기사를 조사하여 2010년에 『『燕行錄全集』演劇史料輯錄』을 발표하였고 추후 추가 성과를 발표할 예정인데¹⁷⁾, 이를 통해 연행록 속의 중국연극 관련 논의를 보다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도 이 성과를 이용하여 기존의 연구에 대한 보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월남과 영국의 방문자들이 기록한 중국연극 자료의 성격

漢文으로 기록된 연행록은 조선 이외에 월남에도 많은 양이 남아 있다. 중국 바깥의 한문 문헌 정리와 연구에 노력하고 있는 復旦大學에서는 2010년에 25책 분량의 『越南漢文燕行文獻集成(越南所藏編)』(이하 『集成』)을 간행하였는데, 여기에는 1314년에서 1884년 사이에 중국을 다녀간 연행사 53명이 찬술한 연행록 79종이 영인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중국에 대한 인식의 확대, 월남인의 화이관, 월남-조선 사신 간의 詩文 교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많고, 漢詩 비평 자료도 찾아볼 수 있어서 국내에서도 꾸준히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⁸⁾ 월남의 한문 연행록에도 중국연극 관련 기사가 포함되어 있음이 최근 조사되었다. 陳正宏은 『集成』에 수록된 연행록 자료들을 검토하여 「越南燕行使者的清宮遊歷與戲曲觀賞」를 2012년에 발표하였는데, 7종의 연행록을 검토하여 청대 궁정의 모습과 연극 관람의 인상을 적은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¹⁹⁾ 이 논문은 월남 연행록에 나타난 중국연극의 모습을 제시하고 해설한 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보고, 본고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보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7) 程芸, 「『燕行錄全集』演劇史料輯錄」(2010). 그는 「『燕行錄』戲曲史料的學術價值初探」(2013)에서 「『燕行錄續集』演劇史料輯錄」과 「『燕行錄戲曲史料補遺』」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8) 최귀목, 「越南의 중국 使行文學 자료 개관 및 연구동향 점검」, 『大東漢文學』 제34집, 2011.
 19) 陳正宏, 「越南燕行使者的清宮遊歷與戲曲觀賞」, 『故宮博物院院刊』 2012年 第5期.

영국에서는 George Macartney(1737~1806)를 특사로 선발하여 건륭제를 접견할 목적의 사절단이 1793년에서 1794년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였는데²⁰⁾, 이때 Macartney 자신과 副使 George Staunton(1737~1801)이 남긴 기록에도 중국 연극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중국과 대만 등지의 논저에서 이미 여러 차례 소개된 적이 있다. 그런데 중국의 여러 책들에서 인용한 Macartney의 기록은 모두 예외 없이 1916년에 劉半農이 번역한 『乾隆英使觀見記』의 문장을 토대로 하고 있다. 최근에 발간된 『京劇歷史文獻匯編』에서도 해당 부분을 劉半農의 번역서에서 발췌하여 수록하고 있다.²¹⁾ 다만 대만에서 출간된 『乾隆時期戲曲活動研究』에서만이 1972년에 秦仲獻가 번역한 『英使謁見乾隆紀實』을 토대로 하고 있다.²²⁾ 그리고 Staunton의 기록은 이들 가운데 어느 책에서도 소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劉半農의 번역서는 현재까지 정리된 Macartney의 영문 기록 手稿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²³⁾, 劉半農 자신이 어떤 원고들

20) 메카트니의 중국 방문에 대한 개요에 대한 최근의 논술은 마크 C. 엘리엇 지음, 양휘웅 옮김, 『건륭제』, 천지인, 2011, pp.298~307, 윌리엄 T. 로 지음, 기세찬 옮김, 『하버드중국사 청: 중국 최후의 제국』, 너머북스, 2014, pp.255~260 참고.

21) 丁汝芹, 『清代內廷演戲史話』, 紫禁城出版社, 1999, pp.150~153, 王政堯, 『清代戲劇文化史述』, 北京大學出版社, 2005, pp.286~288, 朱家潛, 丁汝芹, 『清代內廷演劇始末考』, 中國書店, 2007, pp.49~52 등. 朱家潛, 丁汝芹의 『清代內廷演劇始末考』에서는 인용문 말미에 출처 표시를 영국 濮蘭德와 白克好司가 지었다는 『英使乾隆觀見記』라고 적었으나, 문장은 劉半農의 번역서와 일치한다. 1995년에 珠海出版社에서 『乾隆英使觀見記』를 출판하면서 濮蘭德와 白克好司의 저서로 표기된 것을 인용한 듯한데, 珠海出版社본의 저자 오류본을 인용하면서 서명조차 『英使乾隆觀見記』로 잘못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濮蘭德와 白克好司는 각각 영국 The Times지의 上海 특파원 John Bland(1863~1945)와 중국학 연구자 Edmund Backhouse(1873~1944)이고, 이들은 1914년에 *Annals & memoirs of the court of Peking: (from the 16th to the 20th century)*, London: Heinemann, 1914를 간행한 적은 있으나 이 책을 검토한 결과 각Macartney의 手稿가 발췌된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다.

22) 丘慧瑩, 『乾隆時期戲曲活動研究』, 文津出版社, 2000, pp.223~224.

23) 예를 들어 1793년 9월 18일 서두 부분이 그러하다. 劉半農의 번역서에는 영문본에는 없는 다음 문장이 추가되어 있다. "(건륭) 황제께서도 珍品 여러 종류를 준비하여 친히 내리시고 또한 예물을 여러 貴使들에게 내리고자 하셨다. 貴使들은 새벽에 입궁하여 그 壯觀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내 말처럼 隨從들을 대동하고 입궁하였다." 劉半農, 『乾隆英使觀見記』, p.38. 필자의 판단으로는 劉半農 자신의 부가설명이 번역 원문으로 처리된 것이 아닌지 추정된다.

저본으로 번역했는지를 밝히지도 않고 있어서 번역서가 과연 본래의 영문 기록과 완전히 일치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남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본래 Macartney가 남긴 중국방문 기록 手稿는 후손들이 소장하고 있었다가 1854년 Sir Thomas Phillipps에게 팔렸고, 다시 1913년 5월 23일 Sotheby 경매에서 당시 The Times지의 북경 특파원을 지낸 G. E. Morrison(1862~1920)에게 팔린 후에, 최종적으로 1917년에 일본 三菱財閥의 3代 총수였던 岩崎久弥가 구매하여 그가 중국 관계 도서를 모아 설립한 東洋文庫에 귀속되기에 이르렀으며 현재도 같은 곳에 소장되어 있다.²⁴⁾ 그 사이 그의 手稿 가운데 일부가 1807년 John Barrow와 1908년 Helen H. Robbins에 의해 각각 편찬된 그의 傳記에 발췌되어 수록된 바가 있기도 하지만²⁵⁾, 手稿 전체가 정리되고 간행된 것은 1962년 Cranmer-Byng에 의해서였다.²⁶⁾ 그 후 전술한 것처럼 1972년에 홍콩의 秦仲龢가 번역한 『英使謁見乾隆紀實』이 출간되었는데, 이 책은 Cranmer-Byng의 정리본을 저본으로 하여 中譯된 것으로 추정된다.²⁷⁾ 그리고 1975년에 坪野正高가 Cranmer-Byng 정리본의 일부 결점을 비판하면서도 전반적으로 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東洋文庫 소장 手稿를 바탕으로 한 日譯本인 『中國訪問使節日記』를 출간하였다.²⁸⁾ 이러한 과정을 보았을 때, 劉半農이 저본으로 삼은 것은 Macartney의 수고가 아닌 Barrow 또는 Robbins의 발췌 수록본을 토대로 한 불완전한 번역본으로 추정되기도 한다.²⁹⁾ 이러한 점에서 볼 때, Macartney의 기록은 최소한 영문 정리본 및 중역본, 일역본을 모두 적극 참고하여 주의 깊게 재검토해야 하고, 이와 함께 Macartney를 수행했던 Staunton의 기록³⁰⁾과 청 조정 측

24) J. L. Cranmer-Byng, *An Embassy to China: Being the Journal Kept by Lord Macartney during His Embassy to the Emperor Chien-lung 1793~1794*, Longmans, Green and Co., Ltd., 1962, p.332.

25) John Barrow, *Some Account Of The Public Life, And A Selection From The Unpublished Writings, of The Earl Of McCartney*, London: T. Cadell And W. Davies, Helen H. Robbins, *Our First Ambassador to China: An Account of the Life of George, Earl of Macartney*, London: John Marrya, 1908.

26) J. L. Cranmer-Byng, 앞의 책.

27) 坪野正高 譯, 『中國訪問使節日記』, 平凡社, 1975, p.338.

28) 坪野正高 譯, 위의 책.

29) 위의 책, p.338.

의 문서 모음집인 『掌故叢編』에 실린 「英使馬憂爾尼來聘案」의 기록³¹⁾도 병행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외부인의 기록에 나타난 청대 궁정연극의 모습

전술한대로 외부인이 기록한 중국연극에 대한 자료들이 새로 발굴되고, 이미 알려져 있는 기록에 대해서도 자료 비판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새로운 자료들을 동원한 진전된 논의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대두된 시점이다. 아래에서는 기존 검토 자료와 새로운 자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연극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1) 추가검토 및 재검토 자료 현황

앞서 살핀 것처럼 국내에서 조선의 연행록에 수록된 중국연극 관계 기사에 대해 가장 활발한 연구를 진행한 사람은 이창숙이다. 그는 다음의 17종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³²⁾

許筠, 「朝天錄」(1572); 李滄, 「燕途紀行」(1656); 崔德中, 「燕行錄」(1712); 金昌業, 「燕行日記」(1712); 李宜顯, 「庚子燕行雜識」(1720); 洪大容, 「乙丙燕行錄」(1766); 李岬(土+甲), 「燕行記事」(1777); 朴趾源, 「熱河日記」(1780); 鄭存謙, 「燕行日記」(1782); 徐浩修, 「燕行記」

30) Staunton, George Leonard, *An authentic account of an embassy from the King of Great Britain to the Emperor of China: including cursory observations made, and information obtained in travelling through that ancient empire, and a small part of Chinese Tartary*, London: G. Nichol, 1797. 이 책은 葉篤義 譯, 『英使謁見乾隆紀實』, 商務印書館, 1963의 중역본이 '內部參考用'으로 간행되었다. 전술한 秦仲蘇의 번역서 『英使謁見乾隆紀實』와는 書名이 같지만 저자와 내용은 상이하어 주의를 요한다.

31) 故宮博物院掌故部 編, 『掌故叢編』, 中華書局, 1990, pp.715~716.

32) 이창숙, 「연행록에 실린 중국연희와 그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함.

(1790): 金正中, 「燕行錄」(1793), 徐有聞, 「戊午燕行錄」(1798): 李海應, 「薊山紀程」(1803): 朴思浩, 「燕薊紀程」(1828)³³⁾: 無名氏, 「赴燕日記」(1828): 金景善, 「燕轅直指」(1832): 徐慶淳, 「夢經堂日史」(1855)³⁴⁾

목록에서 보듯이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자료가 두루 포함되어 있고, 특히 崔德中에서 徐有聞에 이르기까지 18세기의 연행록 자료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程芸이 최근 발표한 『燕行錄全集』演劇史料輯錄³⁵⁾과 이것을 재수록한 『京劇歷史文獻匯編(清代卷)』 제8권에는 위의 17종 이외에도 다음의 9종이 더 포함되어 있다.³⁶⁾

李在學, 「燕行日記」(1793): 柳得恭, 「熱河紀行詩」(1801): 成祐曾, 「茗山燕詩錄」(1818): 徐有素, 「燕行錄」(1822): 姜時永, 「輶軒續錄」(1829): 李遇駿, 「夢遊燕行錄」(1848): 姜長煥, 「北轅錄」(1855): 朴齊寅, 「燕行日記」(1860): 無名氏, 「燕轅日錄」(1889?)

이들은 李在學的 「燕行日記」를 제외하면 모두 19세기의 자료들로, 앞의 17종 연행록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인 청대 후기에 걸친 연극 상황을 증언해주는 기록들이다. 본고와 후속 연구에서 이들 연행록 9종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보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使行的 연도와 목적, 그리고 당시 작자들의 신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³⁷⁾

1793.10	(건륭58년/정조17년) 三節年貢兼謝恩使 副使 李在學
1801.2	(가경6년/순조1년) 謝恩使 同行 柳得恭
1818.10	(가경23년/순조18년) 進賀兼冬至謝恩使 同行 成祐曾
1822.10	(도광2년/순조22년) 冬至兼謝恩使 書狀官 徐有素
1829.11	(도광9년/순조29년) 進賀兼謝恩使 書狀官 姜時永

33) 『心田稿』의 卷1에 해당함.

34) 괄호 안에 표시한 숫자는 使行을 시작한 연도이다. 이하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해를 넘겨 北京이나 熱河에 도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5) 程芸, 「『燕行錄全集』演劇史料輯錄」, 『九州學林』 2010年度 春夏季卷.

36) 『京劇歷史文獻匯編(清代卷)』 제8권, pp.261~296.

37) 임기중, 『연행록연구』, pp.24~29.

1848	(도광28년/헌종14년) 冬至兼謝恩使 同行 李遇駿
1855.10	(합풍5년/철종6년) 冬至兼謝恩使 書狀官 姜長煥
1860.윤3	(합풍10년/철종11년) 聖節進賀兼謝恩使 副使 朴齊寅
1889?	(광서15년/고종26년) 無名氏 「燕轅日錄」

이들 청대 후기 연행록을 작성한 기록자는 正使는 확인되지 않고 副使 2인, 書狀官 3인, 同行者 3인, 미상 1인으로³⁸⁾ 書狀官 및 同行者가 다수인데, 正使와 副使는 입궐을 허가받아 궁정연극을 관람할 수 있지만, 書狀官 이하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민간연극에 대한 관람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살펴볼 월남의 연행록 가운데 중국연극 관련기사가 있는 자료는 다음 표와 같다.³⁹⁾ 이 가운데 1790년에 使行한 潘輝益의 『星槎紀行』, 1825년에 使行한 潘輝注의 『華輶吟錄』, 1868년의 燕行使들이 공동으로 지은 『如清日記』에 나타난 중국연극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연극 관람 연도	관람장소	관련 연행록
1790.7~8 (건륭55)	清音閣	陪臣 潘輝益 『星槎紀行』
1796.1 (가경1)	—	乙副使 阮侃 『華程消遣後集』
1809.10 (가경14)	寧壽宮, 同樂院	—
1813.10 (가경18)	寧壽宮	—
1817.10 (가경22)	同樂院	—
1819.10 (가경24)	寧壽宮, 同樂院	—
1825.8 (도광5)	同樂院	甲副使 潘輝注 『華輶吟錄』, 『輶軒叢筆』
1829.8 (도광9)	同樂院	—

38) 임기중, 위의 책에는 成祐曾과 李遇駿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成祐曾은 1818년 進賀兼冬至謝恩使의 正使인 鄭晚錫(1758~1834)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학자 成海應의 『研經齋全集』 卷13 文·序에 실린 「送從子祐曾入燕序」 앞부분에서 燕都를 방문할 예정인 成祐曾에게 正使 鄭晚錫의 훌륭한 인품에 대해 칭송하고 있는 것이 그 근거이다. 成祐曾은 成海應의 조카임을 알 수 있다. 또 李遇駿은 1848년 冬至兼謝恩使의 書狀官으로 燕行한 尹哲求의 처남으로, 尹哲求가 건강이 좋지 않아 姊兄를 돕기 위해 동행하였다. 홍성남, 「이우준의 『봉유연행록』에 대하여」,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9년 12월 28일 월례발표회 발표문, p.5.

39) 陳正宏, 앞의 글, pp.39~40 참고. 연행록의 기록이 없는데 1809년, 1813년, 1817년, 1829년 등의 연행 사실과 관람 장소 및 연행사의 신분은 중국측 자료인 『清高宗實錄』, 『欽定禮部則例』, 『大南實錄』, 『嘉慶道光兩朝上諭檔』 등을 토대로 밝힌 것이다.

1831.8 (도광11)	同樂院	乙副使 潘輝注『華程雜吟』, 甲副使 張好合『夢梅亭詩草』
1837.8 (도광17)	同樂院	正使 范世忠『使清文錄』
1845.12 (도광25)	太和殿	甲副使 范芝香『志庵東溪詩集』
1869.3 (동치8)	寧壽宮	正使 黎峻, 甲副使 黃竝, 乙副使 阮思儔『如清日記』, 阮思儔『燕朝筆錄』, 『燕朝詩文集』

그리고 1793년(건륭58년)의 연극 관람 기사를 남긴 Macartney의 기록도 함께 검토한다.

본고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18세기 말엽~19세기 말엽의 자료들은 크게 궁정의 연극과 민간의 연극에 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시기 조선 燕行使들이 남긴 기록은 궁정연극과 민간연극에 대한 견문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前述한 것처럼 민간연극에 대한 견문이 다수를 이룰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월남 燕行使들의 기록은 위에서 보듯이 궁정연극을 보고 적은 것이 대부분이고, Macartney 일행도 궁정연극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논의의 편폭이 제한된 관계로 본고에서는 자료 검토의 범위를 좁혀서 우선 조선, 월남, 영국의 자료에 나타난 궁정연극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민간연극에 대해 남긴 조선 연행록 자료에 대한 검토는 다음 논의로 미룬다.

2) 건륭 말엽의 기록

검토대상 자료 가운데 시기가 가장 이른 것으로는 1790년에 월남의 潘輝益이 僞王 阮光平을 수행하여 청에 와서 熱河의 淸音閣에서 연극을 관람한 기록을 남긴 『星槎紀行』이 있다. 1790년 8월 13일은 건륭제의 80세 생일이었고, 조선의 연행사 徐浩修(1736~1799)도 熱河에 도착하여 연회에 참석하여 연극을 관람하고 그 기록을 『燕行記』에 남겨서 『星槎紀行』과 상호 보완되는 자료의 가치가 크다.⁴⁰⁾ 『星槎紀行』에 따르면 潘輝益은 7월 11일에 황제를 알현하고, 7월 16일에

40) 서호수의 연극 관람에 대해서는 이창숙, 「1790년 가을, 열하, 원명원, 북경」, 김문경, 앞의 글 참고.

淸音閣에서 연회에 참석하여 연극을 관람하고, 8월 초순의 열흘 간 내리 연극을 관람하였다.

(7월) 20일에 熱河에서 온 어명을 받들고 우선 圓明館에서 황제를 기다렸다. 29일 황제께서 당도하셔서 길가에서 기다렸다. 8월 초하루부터 초열흘날까지 매일 侍宴하며 看戲하였다. 매일 밤 四更(새벽 2시경)에 朝會에 들어가 朝房에서 기다렸다. 卯刻(오전 6시경)에 황제의 寶座를 받들 어 왕공대신, 內屬 중 蒙古, 青海, 回回, 카자흐, 칼카 제 추장들과, 外蕃 중 安南, 朝鮮, 미얀마, 라오스, 臺灣 족속의 여러 使者들이 배열하여 侍坐하였다. 未刻(오후 2시경)에 戲가 끝나고 珍玩을 상으로 내리셨다. 매일 세 차례 음식을 내리셨는데, 전후 두 차례는 고기를 내리시고, 중간에는 단 음식을 내리셨다.⁴¹⁾

徐浩修의 『燕行記』에 따르면 7월 16일에는 熱河의 淸音閣에서 황제의 생일을 앞두고 축하의 뜻을 담은 공연 즉 '九九大慶' 종류의 공연이 16章 이어졌고, 8월 1일부터 6일까지는 북경 원명원에서 「西遊記」가 연속으로 공연되었고, 5일에는 「黃門戲」, 6일에는 「安南樂」이 함께 공연되었다.⁴²⁾ 연속 공연된 「西遊記」는 240齣 길이의 『昇平寶筏』의 일부였을 것이다. 또한 「安南樂」은 월남배우들의 공연을 가리키는 것으로 『星槎紀行』에 그 정황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春季 알현 논의가 성사되자, 나는 축하의 뜻을 담은 詞 10首를 지어 먼저 문장을 쓰고 뒤에 表文과 함께 올렸다. 이에 청의 황제가 御旨를 내리니, (우리는 어지에 따라) 우리나라(월남) 배우 열 명을 가려 뽑아 절박에 맞추어 연창하게 한 다음 이들을 데리고 청을 방문했다. 알현하게 되었을 때, 御殿에서 연회가 열려 禮部에서 우리나라 배우들을 이끌고 앞으로 들어가 노래를 부르게 했다. 대황제께서는 기뻐하시면서 銀幣로 큰 상을 내

41) “二十日, 自熱河奉旨, 先回圓明館待駕. 二十九日奉御到, 候迎道左. 八月初一日至初十日, 連侍宴看戲. 每夜四更趨朝, 候在朝房. 卯刻奉御寶座, 王公大臣, 內屬蒙古, 青海, 回回, 哈薩克, 喀爾喀諸酋長, 外蕃安南, 朝鮮, 緬甸, 南掌, 臺灣生蕃諸使部, 排列侍坐. 未刻戲畢, 賞賚珍玩外, 日三次賜食, 前後二次賜肉品, 中次賜蜜品.” 『集成』 第6冊, pp.237~238.

42) 昭槎, 『嘯亭續錄』 '大戲節戲' 항목에 황제나 황후의 생일을 축하하는 뜻의 공연을 '九九大慶' 이라고 하였다. 徐浩修의 『燕行記』에 기록된 劇目은 이창숙, 앞의 글, pp.122~124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리셨다. 그후 다시 太常官에게 淸의 배우 열 명을 가려 뽑아 우리나라 배우의 복장대로 秀才帽과 交領衣를 입히고 琴笛과 笙鼓를 일제히 연주하면서, 우리 배우들을 禁內로 들어오도록 불러 南音(월남말)을 가르치고 곡조를 연창하게 했다. 며칠 동안 연습하여 숙련되자 연회가 열렸을 때 남과 북의 배우들이 두 줄로 나누어 마주 서서 노래를 부르니 그 격조가 또한 서로 잘 어울렸다.⁴³⁾

이 뒤에는 「滿庭芳」, 「法駕引」, 「千秋歲」, 「臨江仙」, 「秋波媚」, 「卜算子」, 「謁金門」, 「賀聖朝」, 「樂春風」, 「鳳凰閣」 등 자신이 바친 詞 10수가 적혀 있다.⁴⁴⁾ 건륭제의 뜻에 따라 월남과 청의 배우들이 합동 공연을 한 모습이 이채롭고, 청 황제의 80세 생일을 맞아 두 나라의 우호 관계를 확인해준 상징적인 장면이자, 조선의 徐浩修가 남긴 기록과 더불어 당시의 盛宴과 연극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 3년 후인 1793년에는 영국의 Macartney가 열하에 가서 건륭제를 만나고 황제의 83세 생일을 맞아 축수의 뜻을 담은 연극과 잡희를 관람하였다. 그는 건륭제의 생일인 양력 9월 17일 즉 음력 8월 13일에 熱河行宮에서의 축하연을 마치고 물러나와 황제의 園林인 萬樹園을 구경하다가 인형극을 관람하게 된다.

우리는 중국 인형극도 감상했는데 영국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어떤 공주가 괴롭힘을 당해 성에 감금되어 있었는데, 기사가 사자 및 용들과 맞서 싸우고 공주를 구출하여 결혼하니 혼례연과 馬上 기예 등이 펼쳐지는 내용이다. 또 코믹한 드라마도 있는데, Punch와 그의 아내, 그리고 Bandimeer와 Scaramouch가 연기하는 것과 같다. 이들 인형극은 본래 여자들 거주지에서 공연되는데 우리의 여흥을 위해 특별한 찬사의 뜻을 담아 외부 공연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중 한 작품을 보고 우리 안내원들이 크게 환호한 것으로 보아 그것이 궁정에서 인기가 많은 작품임을 알

43) “春季入觀議成，余奉擬祝嘏詞十調，先寫金箋，隨表文投遞，清帝旨下，擇本國伶工十名，按拍演唱，帶隨觀祝。至是，欽侍御殿開宴，禮部引我國伶工前入唱曲，奉大皇帝嘉悅，厚賞銀幣，再命太常官選梨園十人，依我國伶工裝樣，秀才帽，交領衣，琴笛笙鼓齊就，召我伶工入禁內，教他操南音，演曲調，數日習熟，開宴時，引南北伶工分列兩行對唱，體格亦相符合。”『集成』第6冊，p.275.

44) 詞牌的 명칭은 陳正宏, 앞의 글, p.36의 교정 의견을 참고함.

수 있었다.⁴⁵⁾

본래 宮內에서만 그것도 여자들에게만 공연되는 인형극을 사절단을 위해 園林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고, Macartney가 중국의 인형극을 유럽의 광대들이 연기하는 것에 비교하여 설명한 것도 주목된다. 어쨌든 궁정의 공주나 황족들이 인형극을 즐겼음을 말해주는 좋은 자료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튿날인 9월 18일에는 보다 큰 규모의 공연을 관람하는데, 아침 8시부터 공연을 보기 시작하여 점심 때까지 '코미디'를 보았고 황제와 대화를 주고받고 영국 왕에게 전달을 부탁하는 보물 하사품을 받은 일을 적은 뒤에 자신이 본 연극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연극 공연은 매우 다양하였고 비극과 희극이 다 있었다. 별개의 작품들이 몇 편 이어져 공연되었는데, 앞뒤가 분명하게 연결되지는 않았다. 어떤 것은 역사물이었고, 다른 것들은 완전히 환상적인 것이었는데, 읊었다가 노래했다가 평범하게 말했다가 하면서 악기 반주가 전혀 없이 하였고, 애정 장면, 전투, 살인, 그리고 일상적인 사건들이 풍부했다. / 마지막 공연은, 찬사를 받은 것으로 보아, 내 추측에 창의와 기발함으로 최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된 大무연극(grand pantomime)이었다. 그것은 내가 이해한 것으로는 바다와 대지의 결혼을 나타낸 작품이었다. 대지는 용, 코끼리, 호랑이, 독수리, 타조, 참나무, 소나무, 그리고 다른 여러 나무들 같은 다양한 財富과 생산물을 보여주었다. 바다는 지지 않으려고 자신이 지배하는 고래, 돌고래, 거북, 리바이어던, 그리고 다른 바다 괴물들과 배, 바위, 조개, 海綿, 산호 등을 무대 위로 쏟아내었다. 이들은 모두 배우들이 숨어서 연기하였는데 각자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여 감탄스러운 정도로 자신의 역을 연기했다. / 이들 수중 생물과 물의 생물들은 각각 폐긴 시간 동안 원을 돌며 행진하다가, 마침내 하나로 합쳐져 한 몸을 이루고는 무대의 앞쪽으로 나와서 몇 번 모양이 변했다가 오른쪽과 왼쪽이 열리니, 그 사이로 사령관으로 보이는 고래가 앞으로 뒹뒹뒹 걸어 나와 御座의 맞은편에 서더니 입에서 몇 톤이나 되는 물을 뿜어내어 구멍으로 흘러보내니 물은 바닥의 홈을 따라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이 噴水는 큰 찬사를 받아 내 곁에 앉은 大人 두 세 명은 내게 알아들으라는 것 마냥 "호하,

45) Cranmer-Byng, 앞의 책, p.134. Punch는 그의 아내 Judy와 함께 등장하여 단편 이야기를 펼치는 영국 인형극의 인물이다. Scaramouch는 이탈리아의 喜劇인 commedia dell'arte에 등장하는 광대이고, Bandimeer도 비슷한 광대 역으로 추정된다.

흥 호하!”(대단하다, 멋지다!)를 연발하였다.⁴⁶⁾

이 뒤로는 객석에서의 대화, 다양한 종류의 雜技 등에 대한 언급이 이어진다. 건륭제의 80세 생일에 성대한 전례를 치르고 여러 날에 걸쳐 수많은 공연이 이어졌음에 비해⁴⁷⁾, 83세 생일이던 이 해에는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연극이 공연된 듯하다.⁴⁸⁾ 위에 인용된 바다와 대지의 결혼으로 묘사된 공연의 작품명은 葉曉靑에 따르면 현재 북경 故宮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四海昇平」으로, 건륭제의 명으로 Macartney의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편찬한 이른바 ‘朝貢戲’이다.⁴⁹⁾ 이 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文昌帝가 16星神과 金童玉女를 데리고 등장하여 현 황제의 공덕을 찬미하고 ‘英咭喇國’의 ‘朝貢’ 사절이 왔음을 축하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히고 구름을 타고 올라 바다를 건너가려는데, 이때 吉祥의 신기루가 나타나면서 새우, 물고기, 거북, 뱀, 조개 등이 나타나면서 바다길을 막으니 文昌帝가 四海龍王을 불러 등장시켜 朝貢使들을 보호하라면서 길을 열라고 한다. 이어 星神들과 水怪들이 싸우는데 雷公, 電母, 風伯, 雨師, 潮神, 河伯 등도 모두 등장하여 가세한다. 이들 중 거북의 武功이 특히 대단하니 여러 각색들이 3층 무대의 각층을 오르내리다가 결국 거북을 항복시킨다. 그리고 文昌帝가 “훌륭하도다, 聖天子께서 至德하고 懷柔하시니 百靈이 效順하여 과연 四海가 昇平하도다”라고 말하면서 星神들이 “과연 만만년 사해승평이로세”라고 답하면서 끝을 맺는 노래를 부른다.⁵⁰⁾ 이어지는 노래 부분 일부를 살펴본다.

星神들: (白) 과연 만만년 사해승평이로세. (唱) [黃鐘調合套—北水仙

46) 위의 책, pp.137~138. 인용문 마지막의 “호하, 흥 호하!”는 “好, 很好!”를 들은 Macartney가 자신의 방식대로 적은 것이다.

47) 이창숙, 위의 글, pp.122~124.

48) 『乾隆朝上諭檔』 제17책 건륭 58년 8월 13일을 전후하여 검토해보았지만 특별한 공연의 목적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

49) 葉曉靑, 「『四海昇平』—乾隆爲馬夏爾尼來訪而編的朝貢戲」, 『二十一世紀』 2008年 2月號, 總第105期, pp.98~106.

50) 위의 글의 말미에는 「四海昇平」의 원문이 수록되어 있다. Ye Xiaoping, *Ascendant Peace in the Four Seas: Drama and the Qing Imperial Court*,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2012도 참조.

子] 기쁘고 기쁘다네, 기뻐하며 궁궐로 간다네. 축하하고 축하하네, 東海와 南山의 福壽를 축하하네. 잘 만났네 잘 만났어, 우리 司文星이 鰲頭를 獨占한 때 잘 만났네. 어울리네 어울려, 三臺(임금)와 紫薇郎(신하)이 잘 어울리네. 펼쳐지네 펼쳐져, 武功과 文德이 밝게 펼쳐지네. 경사로세 경사라네, 사해승평하고 기쁘고 즐거우니 경사로세. 모였다네 모였어, 온 세상 만국에서 먼 길 배타고 와서 모였다네. 보았다네 보았어, 波臣(水族)이 춤추며 궁궐을 빛나게 하는 모습을 보았네. 훗날리네 훗날려, 상서로운 기운이 구름처럼 퍼져나가 하늘에 빛나네.⁵¹⁾

이러한 내용을 보면 건륭제가 Macartney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뜻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Macartney의 기록을 보면 그는 바다와 대지의 생물들이 섞여 큰 싸움을 벌이는 壯觀에 주로 큰 인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건륭제의 의도가 Macartney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오해 내지 불통이 당시 중국과 영국의 관계의 상황을 상징하고 향후 수십 년 사이에 펼쳐질 두 나라 사이의 악연을 예고하는 듯하다.

3) 함풍동치 연간의 기록

Macartney의 熱河 방문으로부터 약 70여년이 지난 1860년 곧 咸豐 10년 6월에는 조선의 燕行使였던 副使 朴齊仁이 북경 圓明園의 同樂院에 가서 황제를 알현하고 淸音閣 戲臺의 모습과 그곳에서 벌어진 공연을 본 일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먼저 6월 초과일에는 圓明園의 同樂院에 가서 연극을 관람하였는데, 이른 아침에 正使 任百經과 함께 입궐하면서 목도한 同樂院의 모습과 황제 알현의 일을 적고 있다.

卯時(오전 6시경)에 通官이 와서 새벽 입궐을 재촉하다. 禮部員外郎 豫

51) “衆星神：(白) 果然是萬萬年四海昇平也。(同唱) [黃鍾調合套—北水仙子] 喜喜喜，格喜同赴鳳闕朝。祝祝祝，格祝慶那東海南山福壽招。巧巧巧，格巧遇咱司文星獨佔鰲頭。應應應，格應三台紫薇朗照。奏奏奏，格奏武功兼把那文德昭。慶慶慶，格慶昇平四海歡樂。會會會，格會共球萬國梯航途路遙。見見見，格見波臣拜舞輝麟閣。紛紛紛，格紛紛的打瑞靄羅丹霄。” 葉曉青，위의 글, pp.105~106.

章, 通官 德祿, 海齡과 함께 갔고 德祿이 闔官(문지기)에게 명단을 주고
 꺾문을 들어갔다. 이곳은 東夾門이었다. 書狀官 이하는 들어갈 수 없었다.
 ... 높이 솟은 누각이 나타나고 처마는 날아갈 듯한데 아직 虹門이었고 '雨
 花彌天'이라고 씌어있었다. 이곳은 (圓明園의) 同樂園으로 연극을 보는 곳
 이다. 동쪽에서 들어가니 長廊이 있었는데 매우 넓었다. 廊下에 줄지어 앉
 았다. 얼마 뒤, 누각 위에서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끌어들이니 諸王 이하는
 末班을 따라 들어갔다. 처마 아래에 천자가 평상에 걸터앉아 있었다. 통관
 이 우리를 이끌고 가서 앞으로 나가 예를 포하였다. ... 마당 가운데에 높
 은 누각이 있는데, 누각 안은 비어있고 四面에는 모두 廳板이 있고 그 가
 운데 난간이 세워져 있는데 깃발 열 개 길이에 달했다. 누각 아래에는 階
 板을 놓고 그 위에 白氈을 깔았고, 가에 난간을 둘러놓고 西洋布로 휘장을
 드리웠는데 구름 모양의 오채색 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처마, 기둥, 벽, 난
 간에는 모두 한 색으로 칠이 되어 있어서 辰砂를 발라놓은 듯 했다. 높이
 그늘막이 걸려있고, 가는 대자리를 붙여 덮었는데, 깎아놓은 듯한 모습이
 었다. 朱漆木으로 사이 시렁을 만들었는데 서까래와 들보는 한 치도 어긋
 남이 없었고 대자리로 처마를 만들고 그늘막 좌우에 덮어놓아 붉은 실을
 끌어당겨 손으로 붙잡았다. 朝陽은 동쪽 대자리를 드리워 가리고 夕陽은
 서쪽 대자리를 드리워 가리고, 위쪽에서 殿屋을 덮으면 햇볕이 조금도 새
 어들지 않았다. 햇볕이 지나가면 덮여있는 대자리와 좌우의 대자리를 말
 아 올리고 걸어두어 風氣를 통하게 했다. 北殿에는 문살이 있는데 모두 靑
 絲를 붙여놓았다. 처마 아래에 御座가 있고 누런색 요를 깔았는데 여기가
 황제가 연극을 보는 곳이었다. 동서 양쪽 걸채에는 각각 한 칸씩 띄워놓고
 수십 칸이 있었는데 모두 창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宴戲에서는 모두 철
 거했다. 아래쪽에는 黑氈을 깔았고 위쪽에는 白氈을 깔았으며, 茅草 세 겹
 위에 紅氈 방석을 놓았으니 여기는 群臣들이 연극을 보는 장소였다.52)

52) “卯時, 通官來促, 天未明赴闕. 禮部員外郎豫章, 通官二人德祿, 海齡, 祿給入門單于闔官, 始入
 闕門. 此是闕之東夾門也. 書狀官以下皆不得入焉. ... 有峇嶢高樓, 樓檐下仍成翼屋, 仍爲虹
 門, 題曰, ‘雨花彌天’. 此是同樂院, 聽戲所也. 自東而進, 有長廊, 甚廣, 列坐于廊下. 少頃, 自
 樓上樂作, 延入, 諸王以下隨末班而入. 廡下, 有天子踞床而坐. 通官導之, 就前行禮. ... 庭中有
 一高樓, 樓之中間虛通, 而四面皆有廳板, 設欄杆其中, 可達十丈旗. 樓下設補階板, 板上鋪白
 氈, 邊幅設欄杆, 以西洋布爲幔帳, 畫雲紋五彩. 自檐檣壁欄, 一色塗抹, 如設丹覆. 高開涼棚,
 以細蘆簾貼覆之, 如削割之狀. 以朱漆木作間架, 椽棟不失尺寸, 以蘆簾爲檐, 蔽于棚之左右,
 引朱繩而挈之. 朝陽則垂東邊簾而下之, 上覆殿屋, 點陽不漏. 東西陽過去, 則卷起上覆簾及左
 右草而懸之, 以通風氣. 北殿設門檣, 皆以靑絲貼之. 檐下設御座, 鋪以黃褥, 此是皇上聽戲處
 也. 東西兩廡各設一間爲隔者, 凡數十間, 皆有窗檣, 而因今番宴戲, 盡爲撤去. 下鋪黑氈, 上鋪
 白氈. 茅三重, 俱是紅氈方席, 此乃群臣聽戲處也.” 『京劇歷史文獻匯編(清代編)』 第8冊,
 pp.283~284.

주지하듯이 圓明園은 지금은 없고 同樂院 또한 남아있지 않는데, 徐浩修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同樂院의 모습을 묘사한 글을 남겨서⁵³⁾ 황제들이 어느 정도로 애호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위의 인용문에서는 입궐자 신분의 제약이나 입궐 시의 엄격한 검사 등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 사절들에게는 연회에 참석한다는 기대를 갖게 하면서도 대국의 위세를 느끼게 하는 절차로서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누각의 바다, 휘장, 문양, 색깔, 햇볕가리개의 설치, 임금과 신하의 관람석 등 戲臺의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실감을 느끼게 한다. 이어서는 戲臺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공연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먼저 기록을 보자.

누각에서 細樂이 연주되면 戲樓 앞쪽에 구름무늬 畫帳이 드리워지고 가운데가 열렸다 닫혔다. 배우들은 가운데에서 들어와 歌舞와 기예가 차례대로 나왔다 들어갔다. 여러 놀이와 기예가 매 차례마다 각각 달랐다. ① 金冠이나 채색 머리쓰개를 쓰고 비단옷을 입고 손에는 金蓮, 靈芝, 蟠桃를 들고 노래하고 춤추었는데, 이는 祝壽의 뜻을 담은 것이다. ② 여자가 盛裝을 하고 남자를 따라 나와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말하는데, 찻집, 술집, 新房에서 만나고 이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모습이 각각이고 형상이 궤이한테 노래와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서 무슨 小說을 연출하는지 알지 못했다. ③ 또 왕이 冕服, 旒冠, 龍袍 차림으로 傘扇의 儀仗으로 나오는데 제왕 같은 모습으로 交倚에 마주앉아서 몇 차례 노래를 부르고 마치고도 했고, ④ 佛자가 가사와 향축을 갖추고 범패를 염송하면서 층층 의자에 마주 앉아 있다가 마치고도 하였다. ⑤ 또 손에 채색 方扇을 들었는데 합치면 하나가 되고 퍼면 두 개가 되는데 바깥 면에 壽福祿 세 글자가 써어 있고, 안쪽에는 六甲이 써어 있어서 甲子부터 癸亥까지 주위를 빙빙 돌며 염송하고 나가는데 이것은 萬年甲子이다. ⑥ 또 불자가 큰 버드나무 뿔목을 타고 들어오는데 뿔목은 높이가 여러 길이고 너비와 길이는 서너 둘레 정도 되었고, 대(竹)조각으로 만들었는데 마치 등룡 같았다. 그 안에 바퀴가 네 개 있는데 뒤의 것은 나무바퀴고 앞의 것은 쇠바퀴로 쇠바퀴가 나무바퀴보다 약간 작고 곁에는 채색 포로 둘러쌌는데, 마치 뿔목처럼 아래로 畫布를 드리워 파도 모양을 그렸다.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뿔목)물고 나오는데 겉모습으로는 뿔목이 스스로 떠서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실은 모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⑦ 또 용을 타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머리와 꼬리가 꿈틀거리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듯했다. 코끼리, 호랑이,

53) 이창숙, 「1790년 가을, 열하, 원명원, 북경」, pp.125~130.

사슴, 말, 사자, 잉어를 타고 나오기도 하고, 물고기들도 각양각색이었다. 고래를 타고나온 자가 있었는데, 몇 차례 천천히 빙빙 돌면서 배회하더니 갑자기 입에서 물을 뿜어내는데 폭우처럼 곧장 처마의 물받이까지 날아올라가니 그 기운이 10여 길까지 달하는데 몇 차례 물을 뿜으니 온 마당이 다 흥건해졌다. ⑧ 또 웅만한 우박이 쏟아져서 무지개에 먹히는데, 어떤 술수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사람이 고래 배속에서 물을 뿜는 기계를 잡고 돌려서 그렇게 되었으리라. 또 봉새를 타고 학을 탄 자가 있었는데 봉새와 학의 정강이 높이는 거의 한 길에 이르고 정강이 위에는 ‘丁’자 모양의 목판이 달려있고 목판에 발을 묶고 바깥에 翎毛를 드리우고 걸어가며 돌아다니는데 정말 기이한 기예였다. 이는 魚龍曼衍之戲일 것이다. ⑨ 어떤 才人是 재주넘기를 수십 번하며 땅을 치고, 엎어졌다가 일어났다가 하는데 두 사람이 손으로 들어올려 어깨 위로 멀리 던지면 빙빙 날아가서 착지하는데 연달아 세 차례 던지기도 했으니 그 형형색색을 다 적기 어렵다.⁵⁴⁾

인용문의 번호는 편의상 필자가 붙인 것으로, ①은 祝壽戲임이 분명하고, ②는 남녀의 ‘悲歡離合’을 다룬 작품으로 대체로 「西廂記」나 「牡丹亭」과 같은 애정극 종류 가운데 몇 장면을 공연했을 가능성이 있다. ③은 황제가 등장하여 노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극목이니 「長生殿」의 장면을 공연했을 수 있고, ④는 佛僧이 등장하여 역시 노래 중심으로 진행된 극목으로 「西遊記」 또는 「目連救母」 같은 작품의 장면이었을 수 있다. 그리고 ⑤부터 ⑨까지는 특정 故事를 연출한 것이라기

54) “樓上奏細樂，戲樓之前面垂雲紋畫帳，開閉中幅。戲子自中幅入來，歌舞呈技，輪回出入。許多戲技，回回各異，或金冠彩帕，錦袍羅衫，手持金蓮，靈芝，蟠桃，且歌且舞，皆是祝壽也。或有女子盛裝隨男子而出，敘話說情，若茶肆酒樓洞房回合離別之狀。其狀不一，其形殊詭，而不能解其詞曲言語，未知演出何樣小說。或有王者具冕服旒袞，傘扇依仗，儼若帝王，對坐交椅，呼唱幾回而罷。或有佛子具袈裟香燭，誦梵唄，對坐于層層椅子而罷。或有手持彩方扇，合則爲一，展則爲二，外面書壽福祿，內面書六甲，自甲子至癸亥，盤旋周回，誦禱而出，此是萬年甲子也。有佛子乘大柳槎而入，柳槎之制高幾數丈，廣長可三四圍，以竹片結構，若燈籠樣，中有四輪，後是木輪，前是鐵輪，而鐵輪則稍小于木輪，外裹彩布，若柳槎樣，下垂畫布，圖以海濤水勢。中有人挽運而出，外樣看之，柳槎自浮旋環，而實有挽運之人故也。又有騎龍而出者，頭尾蜿蜒，望若生活。有騎象騎虎騎鹿騎馬騎獅騎鯉，而魚樣不一。有騎鯨者，盤旋累回，婉轉徘徊，忽自口中噴水一道，驟雨直上飛閣檐桶之上，其氣橫巨十餘丈，幾度噴水，滿庭沾濕。又有冰雹碎如豆大，噴入虹霓，未知何術，必有人在鯨肚中持噴水機轉幹而使然。又有騎鳳騎鶴者，鳳鶴之脛高可丈餘，脛上設丁字木板，纏足于木板上，外垂翎毛，步行旋回，真奇技也。此果魚龍曼衍之戲也歟。有才人數十筋頭撲地，旋撲旋起，有兩人以手承之，越擲于肩頭上，則又轉旋而立，或有連三次越擲者，形形色色，不可盡記。”『京劇歷史文獻匯編(清代編)』第8冊，p.284.

보다는 축복의 뜻을 담아 甲子를 염송하거나 뗏목 모양을 등장시켜 무대를 돌거나 각종 육상 동물이나 수중 동물들을 등장시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거나 봉새나 학의 모양을 한 연기자의 기예나 재주넘기를 보여주는 전시성 공연이었다.⁵⁵⁾ 연극 공연은 가장 유명하고 황제가 좋아하는 극목을 선택하여 보여준 것이고, 다수를 차지하는 전시성 공연은 중국말을 알지 못하는 외국 사절들을 배려하여 준비한 비언어극 종류라고 볼 수 있으니, 청의 조정에서는 나름대로 외국 사절을 접대하는 뜻을 담았다고 하겠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청의 의도나 배려가 조선을 비롯한 외국 사절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공연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 등의 공연을 통해 외교적인 의례를 완성한다는 점은 청과 외국 양측이 모두 전제하는 바였고, 공연이 열리고 관람하는 것만으로도 외교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同治 연간에는 월남의 연행사 일행인 黎峻, 黃竝, 阮思儻 세 사람이 공동으로 찬술한 『如清日記』에 청의 궁정에서 연극을 관람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1869년 3월 23일은 동치제의 13세 생일로 그 전날인 22일에 寧壽宮에 가서 연극을 본 기록이 흥미롭다.

22일 寅刻(새벽 4시경)에 臣等은 각자 朝服을 갖추어 입고 四譯館 大使 陳煥 등을 따라 東長安門에서 마차를 내려 天安門, 端門, 午門으로 들어갔습니다. ... 辰刻(오전 8시경)에 寧壽門에 들어가서 皇極殿 右直房을 지나 조반을 먹고 오른쪽으로 돌아 養性殿 문 앞에서 寧壽殿 앞 太監房으

55) 해당 일자의 '恩賞日記檔'에는 이날 同樂院에서 「地湧金蓮」, 「蘆林」, 「拷紅」, 「廊會」, 「茶坊」, 「跑坡」, 「萬國嵩呼」 등을 공연했다고 하였다. 『中國國家圖書館藏清宮昇平署檔案集成』 第18冊, pp.9232~9233. 「地湧金蓮」은 戲臺에서 황금 연꽃 다섯 송이가 피어오르고 그 안에 부처님이 앉아계시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蘆林」은 엄한 모친의 아래에서 아내의 고초를 구해주지 못하는 남편 姜詩의 이야기이며, 「拷紅」은 『西廂記』 중의 한 대목으로 紅娘이 鶯鶯의 모친에게 고초를 당하는 장면이고, 「茶坊」은 范仲淹이 張敏의 악행을 밝히는 이야기이며, 「跑坡」는 周文王이 殷紂王의 탄압을 피해 도주하는 이야기이고, 「萬國嵩呼」는 황제탄신을 축하하는 祝壽戲이다. (『中國曲學大辭典』, 『中國劇目辭典』 해당 條目 참고.) 이를 참고하면 ①은 「萬國嵩呼」, ②는 「拷紅」이나 「廊會」, ③은 「跑坡」를 본 기록일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더 면밀한 대조 검토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로 가서 내내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大황제께서 두 황태후와 함께 도착하셨습니다. 양성문으로 들어가서 얼마 후 노래와 음악이 시작되고 예부좌시랑 察杭阿의 안내에 따라 闕是樓 西廊의 列坐 계단 자리로 갔습니다. 察杭阿가 앞줄에 앉고 우리는 그 다음줄에 앉았습니다. 들어가서 앉을 때 먼저 고두를 올리고 나서 부좌하였습니다. 오후에 점심, 당과, 奶茶가 내려졌습니다. 未時 말(오후 3시경)에 노래가 끝나(原注: 「萬壽祥開」로부터 「吉祥獻壽」까지 모두 13出이고, 노래를 마치는데 모두 18刻 1분이 걸렸습니다) 돌아가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百官들이 나가고 臣等도 지나온 길을 따라 숙소로 돌아왔습니다.⁵⁶⁾

월남 연행사 일행이 새벽에 숙소를 나서서 3층 大戲臺인 暢音閣이 있는 闕是樓까지 가서 연극을 관람하는 과정과 관람 劇目, 관람 시간 등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이 글은 자신들을 '臣等'으로 稱한 것으로 보아 월남의 왕에게 보고하는 성격이 있었던 듯하다. 월남 왕이 燕行使들의 행적 특히 연극 관람의 행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엿보게 한다.

월남과 영국의 사절단이 청의 궁정을 방문하여 황제를 알현하고 연극을 관람한 것은 외교적인 공식 절차였다. 대체로 청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된 연행사들이 많았던 만큼 연극의 내용도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뜻이 담긴 '九九大慶' 종류의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Macartney 사절단에게는 내방을 환영하는 뜻을 담은 작품을 공연해주었다. 외국의 사절단들이 청 궁정에서 공연된 연극 작품의 내용과 작품 공연의 의도를 모두 정확하게 이해한 것은 아닌 경우가 많았지만, 연극 관람 자체만으로도 중국과 월남 사이의 조공질서를 확인하거나 중국과 영국 사이의 외교 관계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56) “二十二日，寅刻，臣等各具朝服，隨四譯館大使陳婉等就東長安門下車，入天安門，端門，午門，... 辰刻入寧壽門，過皇極殿右直房，賜朝飯訖，由右轉養性殿門前，至寧壽殿前太監房直候，久之，大皇帝并兩宮皇太后駕到，由養性門入，少頃，歌鼓作，有敕宣召禮部左侍郎察杭阿，經引就闕是樓之西廊列坐階上，察杭阿坐氈第一，臣等繼列其次，入坐先叩頭，而後跣坐，午後賜點心，糖果及奶茶，未末，歌闋將終(自「萬壽祥開」至「吉祥獻壽」，凡十三出，終曲凡十有八刻一分)，敕賜歸，百官趨出，臣等亦出尋舊路回館。”『集成』第18冊，pp.196~198.

5. 맺음말을 대신하여: 이방인의 눈에 비친 중국연극

본고는 중국연극사에서 중국과 '외부'의 상호관계를 '서역'이나 '북방' 등의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해온 경향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면서 더욱 다양한 '외부'가 중국연극에 대해 끼친 영향이나 여러 '외부'로의 중국연극의 확산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확대하고 관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명청대 이후의 중국연극이 타자에 의해 관찰되고 기록된 내용이 기존의 명청대 연극 이해에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단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선, 월남, 영국 등 나라의 외교사절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남긴 기록, 중국에서 활동한 유럽 기독교 선교사들이 유럽에 번역 소개한 중국연극 작품들 및 근현대 서구 작가들의 중국연극 작품 참조, 그리고 동남아시아 및 북미 등지에 이주한 중국인들의 커뮤니티에서 전승된 연극 활동 등을 폭넓게 재발견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조선, 월남, 영국 등 나라의 중국 방문 외교사절들의 기록들 가운데 청대 궁정연극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여 上記한 중국연극의 거시적 재조명을 위한 작은 출발을 시도하였다.

외교사절들의 기록에 나타난 궁정연극의 모습은 청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뜻을 담은 축하공연에서부터 황실에서 애호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꾸민 크고 작은 연극 작품들, 그리고 때로는 외교사절을 환영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창작하고 공연한 작품들 등이 화려하고 성대한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공연에의 초대와 그것을 관람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청과 상대국 사이의 외교 의례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중국어를 구사하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인들로서는 화려한 볼거리가 있는 전시성 비언어공연이 생소하거나 복잡한 서사가 포함된 연극 작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흥미를 갖고 볼 수 있는 것이었지만, 서사 내용이 풍부한 연극뿐 아니라 그것이 간략한 전시성 비언어공연의 경우에서조차도 淸이 준비한 공연 의도가 왜곡이나 굴절이 전혀 없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례로 「四海昇平」을 편찬한 의도가 청 황제의 은덕을 널리 頌揚하면서 영국 사절단을 환영하는 것이었지만, Macartney의

눈에 그것은 바다와 대지가 결혼하는 장대하고 신기한 장면으로 비쳐졌을 뿐 淸의 본래 의도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셈이다. 이러한 소통 부재는 두 나라 사이의 상호 이해가 바로 그 정도였음을 대변해주는 것이고 中-英 두 나라의 이후의 관계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어쨌든 이방인들에게 비친 중국연극 기록은 이 경우처럼 이방인들의 중국연극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당시 중국연극을 관찰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들은 관련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기재하여 기존의 연극사에서 보이지 않았던 내용을 드러내어 주는 의미도 크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 초보적으로 추가 조사된 조선, 월남의 燕行錄 소재 중국연극 관련 기록은 향후 보다 전면적이고 치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參考文獻〉

- 『乾隆朝上諭檔』, 中國檔案出版社, 1998.
- 『越南漢文燕行文獻集成(越南所藏編)』, 復旦大學出版社, 2011.
- 『中國國家圖書館藏清宮昇平署檔案集成』, 中華書局, 2011.
- 『中國劇目辭典』, 河北教育出版社, 1997.
- 葛兆光, 「不意於胡京復見漢威儀」—清代道光年間朝鮮使者對北京演戲的觀察與想像, 『北京大學學報』, 2010年 第1期.
- 葛兆光, 「大明衣冠今何在」, 『史學月刊』2005年 第10期.
- 丘慧瑩, 『乾隆時期戲曲活動研究』, 文津出版社, 2000.
- 磯部祐子, 「朝鮮使節の見た中國戲曲と戲曲觀—燕行錄を主として」, 『青丘學術論集』第8集, 1996.
- 都文偉, 『百老匯的中國題材與中國戲曲』, 上海三聯書店, 2002.
- 廖奔, 劉彥君, 『中國戲曲發展史』(총4권), 山西教育出版社, 2000.
- 傅謹 主編, 『京劇歷史文獻匯編(清代卷)』第8冊, 鳳凰出版社, 2011.
- 施叔青, 『西方人看中國戲劇』, 聯經出版, 1976.
- 申智瑛, 「韓國記行文中的清宮演劇」, 『中國文化報』第21期, 2000.
- 葉曉青, 「『四海昇平』—乾隆爲馬戛爾尼來訪而編的朝貢戲」, 『二十一世紀』2008年 2月號, 總第105期
- 王政堯, 「略論『燕行錄』與清代戲劇文化」,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3, 1997.

- 王漢民, 『福建戲曲海外傳播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1.
- 李肖冰, 黃天驥, 袁鶴翔, 夏寫時 編, 『中國戲劇起源』, 知識出版社, 1990
- 田仲一成, 「朝鮮使節燕行路程における清代初期興行演劇の形成」, 『法文論叢(文科篇)』(熊本大學法文學會) 25, 1970.
- 程芸, 「“燕行錄”戲曲史料的學術价值初探」, 『中國戲曲學院學報』第34卷 第2期, 2013.
- 程芸, 「『燕行錄全集』演劇史料輯錄」, 『九州學林』2010年 夏季卷, 上海人民出版社, 2010; 傅謹 主編, 『京劇歷史文獻匯編(清代卷)』第8冊에도 수록됨.
- 齊森華 等 主編, 『中國曲學大辭典』, 浙江教育出版社, 1997.
- 周寧, 『東南亞華語戲劇史』, 廈門大學出版社, 2007.
- 陳偉, 『西方人眼中的東方戲劇藝術』, 上海教育出版社, 2004.
- 陳正宏, 「越南燕行使者的清宮遊曆與戲曲觀賞」, 『故宮博物院院刊』2012年 5期.
- 金文京, 「燕行使와 通信使가 본 中國과 日本의 演劇」, 鄭光, 藤本幸夫, 金文京 公刊, 『연행사와 통신사』, 박문사, 2014.
- 金學主, 『중국 고대의 가무희』, 명문당, 2001.
- 마크 C. 엘리엇 지음, 양휘웅 옮김, 『건륭제』, 천지인, 2011.
- 안상복, 「연행록의 잡기 관련 기사 연구」, 『중국문학』 제53집, 2007.
- 윌리엄 T. 로 지음, 기세찬 옮김, 『하버드중국사 청: 중국 최후의 제국』, 너머북스, 2014.
- 이창숙, 「1790년 가을, 열하, 원명원, 북경」, 『문헌과 해석』 2003년 겨울호.
- 이창숙, 「만피를 올리는 입의 재주—구기」, 『문헌과 해석』 2002년 겨울호.
- 이창숙, 「연행록 중 중국회곡 관련 기사의 내용과 가치」, 『중국학보』 제50집, 2004.
- 이창숙, 「연행록에 실린 중국연희와 그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 『한국실학연구』 제20집, 2010.
- 이창숙, 「연행록의 중국회곡사료적 가치 탐색」, 『중국문학』 제33집, 2000.
- 이창숙, 「재주는 꿈이 넘고」, 『문헌과 해석』 2004년 겨울호.
- 임기중, 『연행록연구』, 일지사, 2002.
- 임기중, 『燕行錄叢刊增補版』, <http://krpia.co.kr>
- 임준철, 「18세기 이후 燕行錄 幻術記錄의 형성배경과 특성 - 洪大容, 朴趾源, 金景善의 幻術記錄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제47집, 2011.
- 최귀목, 「越南의 중국 使行文學 자료 개관 및 연구동향 점검」, 『大東漢文學』 제34집, 2011.
- 홍성남, 「이우준의 『몽유연행록』에 대하여」,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9년 12월 28일 월례발표회 발표문.
- Cranmer-Byng, J. L., *An Embassy to China: Being the Journal Kept by Lord*

Macartney during His Embassy to the Emperor Ch'ien-lung 1793~1794,
Longmans, Green and Co., Ltd., 1962, p.332.

Mccartney, 劉半農 譯, 『乾隆英使覲見記』, 中華書局, 1916.

Mccartney, 秦仲胤 譯, 『英使謁見乾隆紀實』, 大華出版社, 1972. (『中國近代史料叢刊』所收本)

Mccartney, 坪野正高 譯, 『中國訪問使節日記』, 平凡社, 1975.

〈中文提要〉

历来的中国戏剧史论著里大部分都有中国戏剧从“西域”或“北方”受到影响的观点和论述, 但对中国戏剧和更多方面的“外部”的关联问题的论著比较少。这个“外部”和中国戏剧的关联既包括朝鲜、越南, 英国等国家的外交使节的对中国戏剧接触, 还包括欧洲传教士的中国戏剧作品翻译介绍活动和东南亚及北美等地华裔的戏剧演出活动。本论文主张应该再发现和再评价这些活动的文化意义, 而根据这样的认识首先探讨朝鲜、越南、英国的外交使节的访问记录里面的有关清代宫廷戏剧的内容。

各国外交使节观看的清宫戏剧有庆祝清帝生日的祝寿戏、皇族爱好的故事戏剧、欢迎外国使节的戏剧等戏剧演出。故事性戏剧和展示性演出当中, 对不懂汉语的外国使节更容易接受的是华丽和规模宏大的展示性演出, 但无论是故事性戏剧还是展示性演出, 外交使节不能完全了解清宫安排节目的意图。可是, 外交使节也比较客观地记录当时清宫戏台的特征、演出的光景和观众的反应等诸多宝贵的场面, 这也对我们进一步了解清宫戏剧有不少意义的帮助。

關鍵詞: 清代, 朝鲜, 越南, 英国, 燕行录, 马戛尔尼, 宫廷戏剧

이 논문은 2015년 1월 14일에 접수되어 2015년 2월 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5년 2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